

## 이 나라 電力史에 새겨질 또



尊敬하는 崔昌洛 동력자원부장관님, 尹國老 국회 상공위원장님, 李載兩, 金東周 의원님, 그리고 内外貴賓과 地域住民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나라의 電力史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발자취를 남길 原子力發電所5·6 호기의 竣工式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이 있기까지 10여년에 걸쳐 많은 분들이 흘린 땀과 精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78년 4월 이땅에 原子力에너지가 처음으로 타 오르기 시작한 이후 8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2백만 킬로와트에 달하는 이 거대한 原子力發電所를 준공하면서 남다른 感懷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의 크기가 곧 國力으로 평가되는 오늘날, 우리는 불과 20여 년 전인 1960년의 이 나라의 전체 총용량이 오늘 준공을 갖는 이 發電所의 5분의 1도 안되는 37만 킬로와트의 施設容量으로 온 國民이 견뎌 온 쓰라린 과거를 결코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賦存資源이 없는 아픔과 서러움을 참으로 오랫동안 견뎌어 왔습니다. 우리의 에너지 資源開發은 거의 限界點에 다다르고 있으면서도 國家 에너지 總量의 25% 밖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2천년이 되면 이 에너지의 海外輸入依存度는 더욱 늘어나서 90%까지 이를 것으로 展望됩니다. 더구나 石油資源의 有限성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資源 내셔널리즘을 생각할 때, 다음에 있을 에너지 波動은 이제 한낱 서러움이나 苦痛의 단계를 넘어 우리의 生存과 직결되는 심각한 局面으로 접어들 것이 확실합니다. 에너지 없는 經濟가 있을 수 없고 經濟가 없는 國家存立이 있을 수 없다고 볼 때,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이제 이 나라의 장래와 우리 後孫의 번영을 위한 國家의大事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歷史는 냉혹한 것이어서 한 時代를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몫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 應報는 항상 다음 時代를 사는 後孫들이 받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이야말로 20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時代的 使命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 主役은 國家 總에너지의 3할을 소비하면서 電力을 생산하고 있는 저희 韓國電力이라고 볼 수

# 나 획기적인 자취를 그으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韓國電力은 이 나라에 資源이 없음을 타하기에 앞서 우리의 意志와 智慧로 에너지 自立의 길을 찾아나서기로 했던 것이며, 그 手段으로 原子力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原子力發電所 1호기로부터 10호기에 이르는 지난 10여 년 간의 귀중한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이제 입찰 단계에 들어간 11·12호기를 통해 技術自立을 완성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손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核燃料까지 自給해 나감으로써 2천년에 가서는 국가 총에너지의 4~5 할을 우리 손으로 자급할 수 있는 에너지의 유토피아를 建設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原子力이 갖는 利와 害의 兩面性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原子力은 人類의 未來를 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靈藥인 동시에 人類를 파멸로 몰아 넣을 수도 있는 劇藥의 요소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原子力은 그것이 人類에게 가져다 주는 無限한 價値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높은 人格을 갖춘 사람만이 사용할 資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최근 소련에서 발생한 原子力事故를 통해 자신이 갖추어야 할 도리를 다하지 않고 오만하게 행동함으로써 받은 代價가 얼마나 무섭고, 또 인류에 끼친 해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생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因果와 應報의 깊은 의미를 오래 전부터 알고 항상 謙虛한 자세로 이에 對備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莊嚴한 現代文明의 精髓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이 時代를 사는 에너지 主役으로서의 責任과 몫을 성실하게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같은 저희들의 간절하고도 意慾에 찬 일련의 노력이 2천년대의 榮光과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깊은 配慮와 指導가 계속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與件속에서도 오랜 기간에 걸친 建設工事を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歷史的인 古里原子力發電團地를 조성해 준 建設役軍과 技術陣 여러분, 그리고 關係機關과 地域住民 여러분의 協調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韓國電力公社 社長 朴 正 基